

“기업과 상생 ‘광주형 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광주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포럼
“광주 콘텐츠에 스토리 담아야”
차별화된 실행 전략·전술 필요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13일 인공지능 관련 기업체 관계자, 지역기업 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차 인공지능 산업육성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인공지능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7차 포럼은 텔스타홈(주) 박정수 대표가 ‘AI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팩토리 및 디지털 제조’라는 주제로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강연했다.

박 대표는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광주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해 핵심산업 및 융합기술산

업을 넘어,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산업으로 차별화된 실행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기반으로 각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가 갖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양한 스토리로 연결해 고객과 시장의 새로운 필요에 맞춰 재편집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대표는 광주 송원과 출신으로 현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임하며 스마트팩토리 전문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 에스에이피 코리아 제조산업 본부장, 아모레퍼시픽 마케팅실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Link5 플랫폼’을 통해 제

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텔스타홈은 지난해 4월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팩토리, 조립라인자동화설비 등 제조혁신분야 중소기업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형 연계기술 개발 사업(R&BD)의 일환으로 광주지역(㈜상오정밀, ㈜인아, ㈜보명전자 등 3사에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했다.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에도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포럼을 통해 모든 기업들이 다함께 상생하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영암군

아동양육 긴급생계비 지원

영암군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 아동양육에 따른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양육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군이 이번에 지원하는 아동양육 긴급생계비는 전액군비 2억 3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약 2300명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1인 10만원이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긴급생계비임을 감안하여 설 명절 이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이전에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와 신청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2021년 1월 기준 영암군에 주소록 두고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목포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목포시가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처음 시행한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입주민은 안전한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고 투표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를 관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하는 투표, 동별대표자 선출,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 제·개정 찬반 투표 등을 실시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단지별 연 1회에 한해 전자투표 비용 수수료의 100%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전자투표 비용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목포시 건축행정과로 사전 신청해 승인받고, 전자투표 관리업체를 선정·실시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올해 165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상주시, 스마트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 구축

농산물 상품성↑·유통 경쟁력 제고
유통시설 선별기·마케팅 등 지원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올해 165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역농협 및 농업인단체, 수출단지, 통합 마케팅조직 등을 대상으로 1월 중 사업 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전년도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유통시설의 선별기, 저온 저장고, 포장재, 마케팅 지원 등이다.

또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산지 유통조직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한 유통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여성 농업인, 고령 농업인의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반찬산업 육성 등 가공분야도 적극 지원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했다.

특히 수출기반 조성 및 물류비 및 수출 촉진 장려금 지원 등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정책으로 상주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국내시장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의 소득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j2136@

쾌적한 축산환경에 1.6조 투입

전남도, 축산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축산 인증 농장, 4500호까지 확대
축산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

전남도는 환경친화형 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5년 간 총 1조6227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친화형 축산 5개년 계획은 현재 2조8600억원의 축산업 생산액을 오는 2025년 5조원까지 확대하고 환경친화형 축산 인증 농장 수도 2600호에서 4500호까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야별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8개 사업 1382억원 ▲환경친화형 축산 기반 확대 14개 사업 5699억원 ▲조사료 생산 및 명품 한우 육성 12개 사업 5701억원 ▲미래 성장산업 육성 34개 사업 2399억원 ▲축산 신기술 연구개발 7개 사업 1046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축산 5개년 계

획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정,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 녹색축산농장 지정 등 동물복지형 축산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른 성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 1651호(전국 1위), 녹색축산농장 288호, 깨끗한 축산농장 665호 지정 등을 추진했다.

한우 품종 개량과 고급화로 전남 으뜸한우송아지를 선발해 일반 한우송아지보다 마리당 30만~46만원(9~15%)이 높은 경매가격을 형성하기도 했다.

안정적인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전국 14만1000ha의 35%인 4만9000ha 면적에서 전남지역 조사료 총소요량 170만9000t보다 많은 185만t을 생산하고 있어 108%의 자급률을 확보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 축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유도

강인규 나주시장이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SNS를 통해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하는 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박소준 나주시의회 의원의 지목을 받은 강 시장은 이날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부산시, ‘온실가스 1인 1톤’ 감축 나선다

12개 대표 실천과제 선정

부산시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1단계 실행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2개 대표 실천과제를 선정해 월별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과제를 잘 지킬 경우 연간 1인 1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 부산시민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연간 34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동절기인 1월에는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겨울철 실내기온 20℃ 유지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겨울철에 실내기온을 적정온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1인당 76.7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는 온라인을 비롯한 옥외 전광판, 게시판, 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하의원 기자 bsmorning@

영양·울진군 토종명품화사업단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토종종자를 활용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영양군과 울진군이 공동투자해 설립한 (사)토종명품화사업단에서는 13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600만원을 영양군을 방문해 전달했다.

토종명품화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을 위해 특화된 농산물을 산업화하는 생산농가 소득증대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영양군과 울진군이 공동 설립하여 천궁, 당귀, 도라지 등 우리지역 토종자원을 세척, 건조, 가공 및 유통 과정을 거쳐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영양·울진(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